

류현진, 복귀 첫 승 코리안 메이저리거 최고령 선발승



▲ 더그아웃을 향해 손가락을 펼쳐 보이는 류현진.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 뒤 힘든 재활 치료와 훈련 후 14개월 만에 미국 메이저리그(MLB) 무대로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6·토론토 블루제이스)이 복귀 세 번째 경기에서 승리 투수가 되며 코리안 메이저리거 최고령 선발승을 기록했다.

류현진은 13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2개와 볼넷 2개만 내주며 삼진 3개를 곁들여 2실점(비자책)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토론토가 8-2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온 류현진은 지난해 5월 27일 LA 에인절스전(5이닝 2실점) 이후 444일 만에 승리투수가 되며 메이저리거

통산 76승(46패 1세이브)을 기록했다.

이날 기준 류현진의 평균자책점은 4.00에서 2.57로 떨어졌다.

류현진은 이 승리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다. 1987년 3월 25일생인 류현진은 36세 4개월 20일에 빅리그 선발승을 거두며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보유한 코리안 메이저리거 최고령 선발승 기록을 경신했다. 박찬호가 필라델피아 필리스 소속으로 35세 10개월 13일이던 2009년 5월 13일 LA 다저스를 상대로 선발승(6이닝 2실점)을 거둔 것이 종전 최고령 기록이었다.

오랜만에 승리 투수가 된 류현진은 "한 번도 재활 훈련을 멈춘 적이 없다.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고, 지금 나는 결과에 만족한다."며 흡족해했다.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은 물론 전장인 컵스의 데이비드 로스 감독도 류현진의 투구를 칭찬했다.

슈나이더 감독은 "팔꿈치를 다치기 전 보여줬던 모습을 복귀 후 3경기에서 재현했다. 그 나이에 그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데, 류현진에게는 쉬운 일처럼 보인다"고 칭찬을 이어갔다. 로스 감독도 "류현진은 던질 줄 아는 선수다. 체인지업이 정말 굉장하다."고 치켜세웠다.

'골프 여제' 박인비, 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 선정

'골프 여제' 박인비(35)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로 결정됐다. IOC는 내년 파리 올림픽 기간 참가 선수 투표로 새로운 선수위원 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이날 제2차 원로회의를 열고 내년 새 IOC 선수위원 선출 투표에 출마할 한국 후보자로 박인비를 추천했다. 박인비는 진종오(사격), 김연경(배구), 이대훈(태권도), 김소영(배드민턴)과 경쟁했다.

IOC 선수위원은 직전 올림픽에 출전했거나 선거가 열리는 올림픽에 현역 선수로 참가하는 선수만 출마할 수 있는 자리다.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하고 선수와 IOC의 가교 구실을 하고 스포츠 외교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1승을 거둔 박인비는 4대 메이저대회를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명예의 전당에도 가입한 현역 최고 스타 중 한 명이다. 여기에 여자골프가 116년 만에 올림픽 종목으로 부활한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목에 걸어 최초의 '골든슬램'도 이뤘다.

영어 실력은 특히 후보 중 최고 수준이라 이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위원이 되려면 IOC 공식 언어인 영어와 프랑스어 중 하나를 유



▲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을 위한 대한체육회의 비공개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박인비. 사진=연합뉴스

창하게 구사해야 한다.

박인비는 적극적으로 IOC 선수위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리우 올림픽과 2021년 도쿄 올림픽에 출전했던 건 선수위원을 향한 꿈 때문이었다. 올림픽 정신으로 리우 올림픽 금메달을 땀고, 이제 그 정신을 세계에 알리며 올림픽 운동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역대 한국 출신 IOC 선수위원은 2명이다. 2004 아테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이 2008 베이징 올림픽 기간 처음으로 선출됐고, 아테네 올림픽 탁구 남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은 2016년 리우 올림픽 기간 뽑혀 곧 8년의 임기를 마친다.



어바인 Total Care 임플란트 치과

시니어 스페셜!

65세 이상 메디케어로 받치, 뼈이식등 구강외과 혜택 가능

메디케어 인증 병원
컴퓨터 가이드 임플란트 시술로 무절개,
무통증, 빠른 회복, 치과공포 있으신 분
정맥마취로 자면서 치료 가능





James Kim 치과
949.727.0777
한국어 문의 949-702-7811
113 waterworks way #220
Irvine, CA 92618





74420 Hwy. 111 Suite 1, Palm Desert, CA 92260
760.779.5662 (팜스프링 지점)